

5백단어의 '유창한' 영어실력과 어느 아랍 외교관의 차이

박찬길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를 뜻할 수 있다. 영어학습에 관한 논의를 접할 때마다 확실해져오는 것은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에 따라 학습목표도 더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해외영어연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방학 중의 해외배낭여행이 보편화된 것처럼 학기말이 되면 휴학계를 들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다. 서류에 명시된 이유는 가정형편 혹은 개인사정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해외영어연수가 진짜 이유다. 학교공부보다도 영어(회화)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외국 체험을 좀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착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학 때 잠깐씩 다녀오는 것이라면 몰라도 휴학까지 해가며 영어를 배우러 간다니, 영어를 배우는 일이 대학의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도대체 외국에서는 무슨 영어를 얼마나 굉장하게 배우길래 학업을 ‘중단’ 하면서까지 뛰쳐나간단 말인가. 하긴 요즘에는 기업에서도 어학연수 경험자

를 선호한다니 무작정 말릴 수도 없는 일이고... 필자는 마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장을 찍어 주곤 한다.

해외영어연수를 꼭 가야 하나?

영문과 교수로서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려면 필자는 대개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영어권에서의 생활경험은 구어체 영어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영어구사능력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영어권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 감각을 익힌다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교육비 부담의 가중과 외화의 낭비라는 문제점도 있다. 또한 해외영어연수가 확산되면 국내의 정규 영어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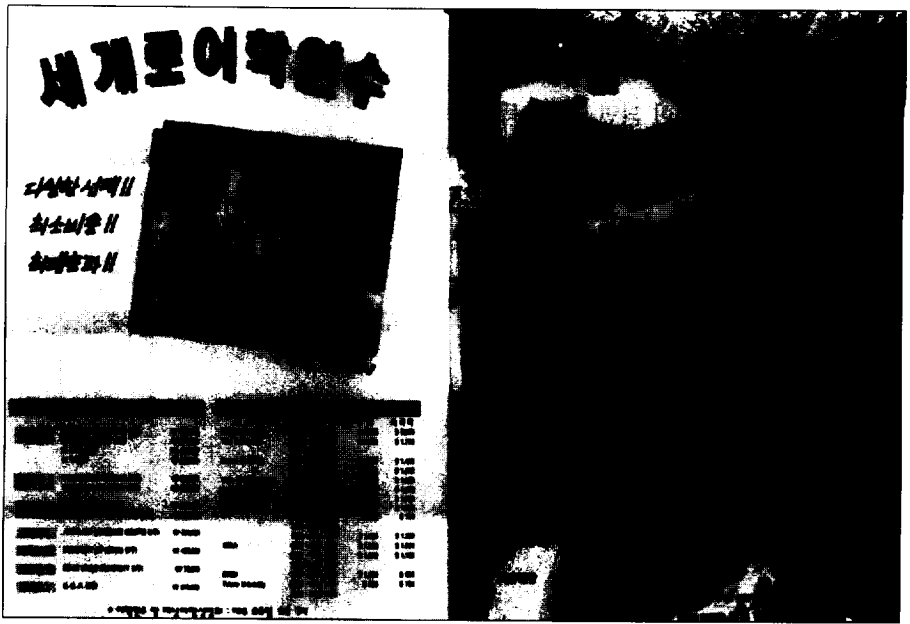
왜곡하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
성할 가능성도 있
다. 꼭 가고 싶다
면 연수장소와 기
간, 교과과정을 신
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젠가
대학생 딸을 가진
필자의 누이가
“애, 아무개가 휴
학을 하고 미국에
가야겠다는데 이
걸 보내야 되는 거
니?” 하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

한 기억이 있다. “개는 미국만 가면 영어가 저절로
되는 줄이나 보지? 그리고 영어회화는 도대체 왜 배
우겠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학교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그대. 학교 영어시간에는 졸고 앉아 있는 녀
석들이 꼭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소위 전문가라
는 동생의 야멸찬 대답에 누이는 매우 섭섭해 했지
만, 그건 진심이었다. 그렇다고 해외영어연수가 일
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 필요성과 효과는 연수대상의 구체적인 상황
과 목적에 따라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이 잘못됐다?

요즘은 입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영어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과
마주치면 길 안내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다(필
자의 생각으로는 한국 관광산업의 낙후성과 국민들
의 영어실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 요컨대 회화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대한민국의 ‘낙후된’ 영어교
육의 부정적인 결과는 배낭여행의 현장에서, 바이어
와의 상담현장에서 매일 매일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한 광고사의 어학연수와 배낭여행 광고.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효과는 연수대상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다. 사실 그런 취지에서 얼마 전부터 중고생들의 영
어교과서가 회화 위주로 바뀌었고, 대학입시 영어과
목에서도 문법이나 철자, 강세의 위치를 묻는 문제
보다는 영어청취능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경향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
한 사안인가는 청취시험이 치뤄지는 순간에 전국적
으로 비행기의 이착륙이 통제되기까지 한다는 사실
을 보면 실감할 수 있다). 대학의 교양영어 프로그램
도 독해 위주에서 회화 위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영문과의 커
리큘럼에서도 영국인들이 인도와도 안바꾸겠다던
세익스피어 강독보다 'Business English' 같은 과
목이 더 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세'에 약간의 토만 달아도 문학전공 교수의 안일
한 직업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몰리기 십상인 것이다.

해외영어연수 붐은 결국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
으로의 정책 전환이 빚어낸 결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끔찍한 비유를 써서 '영어의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 나라에 직접 가서 'Native
Speaker' (이 말이 하도 많이 쓰이니까, 요즘은 '원

어민'이라는 이상한 역어가 생기기까지 했다)와 부
 딥혀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좀더 극단화되어 어른이 되면 영어습득에 한계가 있
 으니 아예 어린 시절부터 '원어민'으로 만들어버리
 자는 생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이른바 2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bilingual'로 만든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
 한 시도가 실제
 로는 'bilingual
 illiterate' (2개
 국어 문맹)을 양
 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다. 2개 국어를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만 선택한다
 면 요즘 같은 세
 상엔 한국어보다
 영어를 모국어로
 선택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
 각하는 부모들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다. 영어열기(광
 기?)의 강도가
 이 정도에까지
 이르면 그것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민족적 주체성의 문제를 생각하
 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민족적 주체성의 문제까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
 도 우리가 영어를 미국사람이나 영국사람처럼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옳으나, 또 옳다
 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하냐, 또 가능하다 하더라

도 모든 사람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어를 배울 필
 요가 있겠는가를 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사람처럼 영어를 하고 싶다고?

필자처럼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
 해 타전공자들보다 영어를 좀 낫게 할 가능성이 있

지만, 영어에 대
 한 열등감과 좌
 절감이 더 크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영국사람이
 나 미국사람이
 되버리고 싶을
 만큼 그들의 영
 어를 그대로 모
 방하고픈 욕구가
 절실했던 시기가
 필자에게도 있었
 다. 유학 2년차
 던가... 그런 욕
 구가 너무도 강
 렬하여 한국사람
 들을 일절 안만
 나고, 한국말로
 편지도 안쓰고,
 그쪽 친구들과
 열심히 술을 먹
 으러 다녔다. 영
 어는 어학원의
 교실보다는 술
 먹으며 배우는



토익공부에 여념이 없는 대학도서관(위), 대학의 시청각실(아래).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개인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잘 수
 행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거리는 나름의 신조를 세워놓고 그들과의 '사교생
 활'에 열중했던 것이다. 그 결과 영어보다는 술이 더
 늘어서 문제이긴 했지만 귀국 후 현재의 직장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실력'은 학위논문보다 그
 시절의 경험에 힘입은 바 더 크다. 그런 시기를 거치
 면서 필자 나름으로 내린 결론은 그들과 똑같은 영

어를 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필자 자신의 개인적인 한계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식이기도 했지만, 설사 그러한 한계가 아니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영어'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처음부터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도 동시에 들었던 것이다. 물론 영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영어구사력을 갖추어야 하고,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내 나름의 감각을 가져야 하겠다는 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한 '영어실력'이 반드시 그쪽 친구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필자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여러가지를 뜻할 수 있다. 영어학습에 관한 논의를 접할 때마다 필자에게 점점 확실해져오는 것은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운다는 것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배우는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에 따라 학습목표도 더욱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 가령 한국어와 영어 간의 통역을 담당할 사람의 영어교육과 영문학자에 대한 영어교육이 달라질 수 있고, 유능한 통역사와 유능한 영문학자의 '영어실력'은 동등한 잣대로 비교될 수 없는 판이한 성격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통역사에게는 표현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꼼꼼한 이해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순 발력있게 파악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고, 영문학자에게는 후자보다 전자가 더 긴요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다.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영어를 사용하며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지, 그들과 같은 발음, 그들과 같은 어법, 그들과 같은 관용구, 그들과 같은 욕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의 이런 의견은 필자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유학생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발음', '좋은 표현',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영어'라고 하는 것은 존

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복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흔히 BBC영어가 좋다고 하여 따라해 볼까 했더니, 실제 생활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Queen's English' 역시 실용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런던 사람들의 발음이 다르고 뉴카슬(Newcastle)사람들의 발음이 전혀 달랐다. 내가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Glasgow)의 영어를 처음 들으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영어라는 것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 택시운전사와 대화를 나눠 보면 'Native Speaker'와 똑같은 영어를 하고 싶다는 소리도 쑥 들어갈지 모른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발음에 관한 한 스코틀랜드의 인버네스(Inverness, 피물이 산다는 네스호에 면한 도시)지역의 영어가 가장 '순수'하고 외국인이 배우기에도 가장 '좋은' 영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쪽 발음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영어에서 '좋은' 발음으로 인정해줄지는 의문이다. 발음뿐만이 아니라 어휘와 문법이라는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요컨대 소위 '본토'의 '원어민'들도 대단히 여러가지 형태의 영어를 구사하고 있고, '좋은 영어'라거나 '표준 영어'라는 것을 정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창한' 콩글리쉬로 밀고 나가?

어떤 개그맨이 미국에 가서 서너가지의 의성어만 가지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노라고 농담 반 진담 반 털어놓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궁극통이라, 어쨌든 통하기만 하면 장땡이니 영어라는 것은 애당초 제대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선생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 것인가. 또 하나 필자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유창한' 영어에 대한 환상이다. 필자의 유학시절 얘기를 한번 더 인용한다면, 유학 1년차 때 필자의 룸메이트였던 프랑크라는 스페인 친구는 거짓말 안보태고 영어어휘 실력이 넉넉잡아 5백단어 이내였다.

어린 시절부터 런던을 제 집 드나들 듯이 해온 터라 대한민국의 영문학 석사보다 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못하는 말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영어실력' 이 그러한 형태의 의사소통 능력인가? 1년 동안 그 스페인 친구는 나에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테크닉과 자신감은 가르쳐준 셈이지만 그 친구가 영어숙제를 하는 데는 내 신세를 많이 졌다. 그리고 그 친구와 시시덕거리면서 술잔은 많이 기울였지만 알맹이 있는 대화는 나누기 어려웠다. 그런 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어휘들은 그의 '사전'에 없었으므로.

외국인의 '영어실력'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또 하나의 인물은 걸프전이 한창이던 시절 빠리주재 이라크 대사를 맡고 있던 한 아랍외교관이었다. 그는 후세인을 대신하여 서방언론에 이라크쪽의 논리를 대변하던 인물로서 거의 매일같이 TV에 불려나와 적대적인 언론인과 정치인들의 가시돋친 질문공세에 혈혈단신 맞서고 있었다. 그때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그야말로 자신의 '영어실력' 밖에 없었다. 필자 같은 외국인에게는 그의 발음은 영어보다 아랍어에 더 가깝게 들렸다. 문법도 시원치 않았다. 더듬거리는 것도 거의 필자의 수준이었다. 게다가 그가 대변해야 하는 후세인쪽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라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영국의 유명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그를 한번도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영어실력'의 요체는 풍부한 어휘력과 그리고 적절한 표현으로 조직해내는 사고력이었다. 필자는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외국인의 영어학습에 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한 '영어실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지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쌓아야 할 영어실력은 'You know'와 'I mean'으로 인터뷰의 절반을 채운다는 영국의 어느 유명 권투선수의 '유창한' 영어구사력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랍외교관의 '사고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력은 소위 '원어민'이라고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포장마차에서 영어회화를 배운다고?

며칠전 우리나라에 와서 불법으로 활동하는 영어강사의 실태를 고발하는 TV 프로그램에는 한 서양남자와 밤거리의 포장마차에서 영어회화 강습을 받는 우리나라 여학생의 모습이 나왔다. 필자 자신도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여대생인 듯한 처녀와 근사한 식사를 하며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영어대화를 '교습'하는 한 교포청년을 목격한 적이 있다. 영어를 연습한다고 서양친구들과 펍(Pub)이라고 불리는 술집을 전전한 경력을 가진 필자로서는 이들이 사용한 영어교습의 장소를 타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본래 대화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필자의 경험으로는 한국말로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과는 영어로 해도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없고, 흥미롭지 않은 영어대화를 통해 쌓을 수 있는 영어실력은 별로 없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길 안내나 자기 소개가 전부인 바에야, 영어권 출신이라고 아무에게서나 영어를 배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해외영어연수는 외화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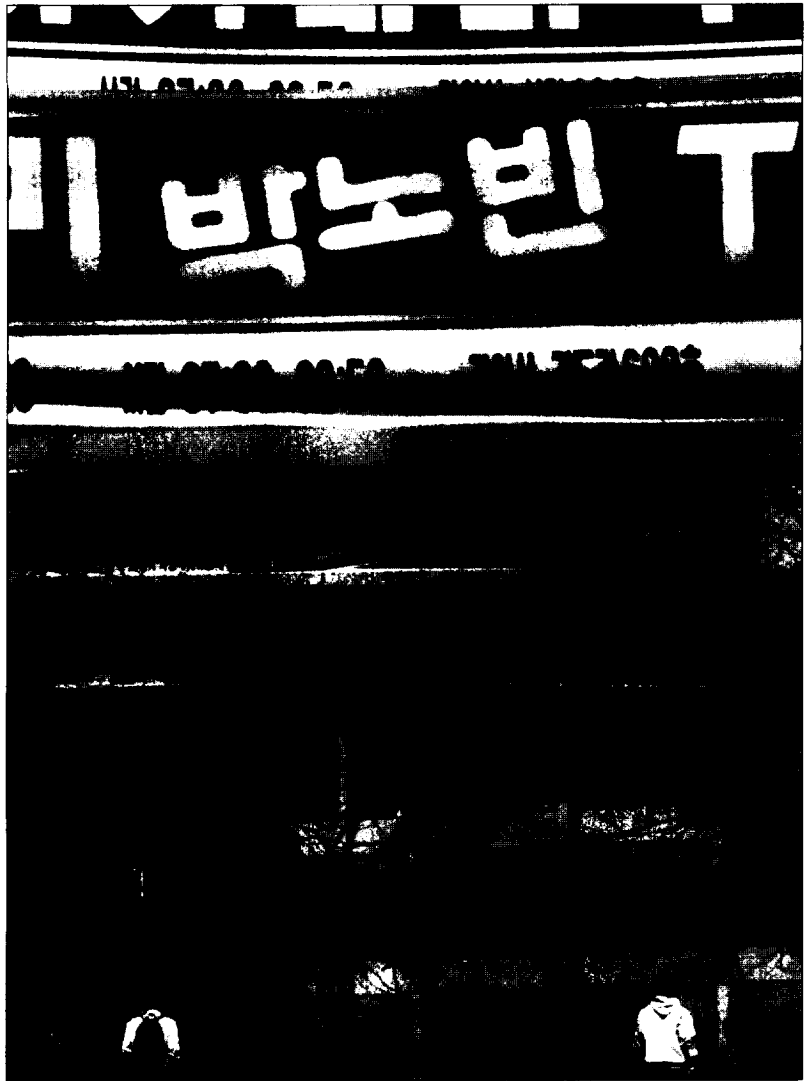
필자가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는 도장을 찍어주면서 조카딸에게는 학교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편지를 준 것은 조카가 제자보다 소중하거나 그 반대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외연수가 가질 효과가 그들에게 각기 다를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외국 대학의 어학원에 가기만 하면 우리 대학의 영어교실과는 전혀 다른 영어회화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외국에 간다고 다 외국사람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유명대학의 어학원 교실에는 머리 노란 서양인이라고는 선생 하나고 나머지 대부분은 한국인이거나 아시아계, 혹은 한국의 중학교 수준의 어휘력을 가진 남미, 유럽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반나절이면 하루의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같이 어울려 한국식당으로 몰려가는 건 한국 친구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의 어학 프로그램이 반드시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우리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문법이나 어휘력이라는 면에서는 외국의 어학원 교실에서 새로 배울 것이 별로 없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가진 영어능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일이고, 이것에는 그 나름의 전문적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방식에 있어서 외국 유명대학의 어학원이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실보다 더 낫다고 단언할 근거는 전혀 없다. 적어도 우리 학생들의 이러한 균형 잃은 영어구사력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 선생님들(외국인 선생님들을 포함하여)이지 바다 건너 '본토' 영어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1년간의 해외영어연수 효과는 한달간의 해외배낭여행과 수개월간의 잘 짜여진 국내 영어 프로그램의 효과보다 못하다. 준비가 안된 학생들을 무조건 장기간 외국에 내보내기보다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영어훈련을 충분히 받게 한 다음, 방학을 이용한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성취동기가 강한 학생이라면 방학프로그램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



몇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대학가의 토익 열풍. 우리가 쌓아야 할 영어실력은 사고력이다.

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가령, 한국의 화학공업과 대학생이 영어권 화학공업과 대학생과 직접 접할 수 있고, 그런 상대를 만나야 피차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 '영어의 바다에 빠지기' 보다는 잘 선택된 25미터 풀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이 영어구사력이라는 목숨을 보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